

요한계시록의 바다의 등장(4:6)과 전개(15:2)와 퇴장(21:1) 과정에 나타난 신학적 의의와 새 출애굽

김선욱*

1. 서론

요한계시록은 4장에서 환상이 시작되고 재앙과 심판의 무서운 장면들이 20장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21장부터 새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리고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21:1에서 매우 흥미로운 묘사가 나온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와 동시에 바다는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요한은 우주를 ‘하늘과 땅과 바다’로 반복해서 묘사한다(5:13; 10:6; 12:12; 14:7).¹⁾ 이 세

*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안양대학교 신약학 겸임교수. sunwook5394@hanmail.net.

1) 유대인은 우주를 삼층으로 이루어진 삼중 구조로 이해하고, 계 5:3에서 ‘하늘 안에나 땅 위 에나 땅 아래’(ἐν τῷ οὐρανῷ οὐδὲ ἐπὶ τῆς γῆς οὐδὲ ὑποκάτω τῆς γῆς)는 이러한 유대인의 우주관을 반영한다(출 20:4, 11; 욥 11:8-9; 시 146:6; 빌 2:10). Grant R. Osborne, *Revelation*,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251. 계 5:13에서는 바다를 첨가하여 공간을 네 부분으로 제시한다. ‘하늘 안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ἐν τῷ οὐρανῷ καὶ ἐπὶ τῆς γῆς καὶ ὑποκάτω τῆς γῆς καὶ ἐπὶ τῆς θαλάσσης καὶ τὰ ἐν αὐτοῖς πάντα). 고대 이스라엘의 우주관은 네 개의 공간 중 땅과 바다를 하나의 층으로 간주하여 삼층 구조로 제시한다. ‘(1) 하늘, (2) 땅과 바다, (3) 지하 세계’. 욥 11:8-9은 하늘, 스올, 땅, 바다로, Jubilees 2.16은 하늘, 땅, 바다, 깊음으로 묘사한다. David E. Aune, *Revelation 1-5*, WBC 52A (Dallas: Word, 1998), 366. 유대인의 우주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uis I. Stadelmann, *The Hebrew Conception of the World*, AnBib 39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70), 37-176을 참조하라. 요한은 계 10:6; 12:12; 14:7에서 우주를 하늘, 땅, 바다로 묘사한다. D. Mathewson, “New Exodus as a Background for ‘The Sea Was No More’ in Revelation 21:1c”, *Trinity Journal* 24 (2003), 246. 참조. Sung-Min Park, “More Than a

영역은 우주를 구성하는 것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지만 새 창조 때에 바다는 제외된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처럼 옛 바다는 사라지고 새 바다가 나타나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ἡ θάλασσα οὐκ ἔστιν ἔτι, 계 21:1). 그렇다면 왜 바다는 새 창조 때에 사라져야만 하는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다는 새 창조의 세계와 조화될 수 없고 구성 요소의 일부도 될 수도 없으며 소멸되어야 할 운명에 처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에게 바다는 무엇이기에 사라져야 할 존재인가?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속성은 어떤 것인가?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1:1의 바다를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바다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바다는 땅의 거주민들에게 항해에 있어서 위협적인 것이고, 특별히 밧모 섬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는 그의 교회와의 교류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²⁾ 또 다른 학자들은 바다가 세상 나라들 가운데 벌어지는 국제적,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 또는 갈등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이해한다.³⁾ 하지만 바다를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바다나, 혹은 풍량이 이는 바다의 심상으로부터 무질서나 혼란으로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함의하는 바다의 신학적 의미를 온전히 파악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바다와 마찬가지로 땅 또한 혼돈과 파멸을 의미하지만 —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듯이(13:1) 땅에서도 짐승이 나오며(13:11) 환난과 핍박이 있다. — 새 창조 때에 옛 땅은 자취를 감추고 새 땅이 나타난다(20:11; 21:1).⁴⁾ 이렇게 옛 땅이 사라지고 새 땅이 나타났다면,

Regained Eden: The New Jerusalem as the Ultimate Portrayal of Eschatological Blessedness and It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Book of Revelation”,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1995), 153-154.

- 2) H. B. Swete, *The Apocalypse of St John* (London: Macmillan, 1906), 272; Leon Morris, *The Book of Revelation*, TNTC,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87), 237. 참고. 보링(M. Eugene Boring)은 바다의 소멸이 요한의 소망, 즉 바다로 말미암아 그의 공동체와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이 사라질 것이라는 개인적 기대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서의 바다가 새 창조와 더불어 완전히 파멸되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더 깊은 신학적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M. Eugene Boring, *Revelation*, IBC (Louisville: John Knox, 1989), 216-217.
- 3) 윌리엄 헨드릭슨, 『요한계시록』, 김영익, 문영탁 역, 헨드릭슨 패턴 주석 시리즈 (서울: 아가페, 2015), 291. 패턴슨(Paige Patterson)은 바다가 밧모 섬에 고립된 요한과 그의 공동체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임과 동시에 사회 질서의 혼란을 의미하는 묵시문학적 은유를 함께 내포한다고 말한다. Paige Patterson, *Revelation*, NAC 39 (Nashville: B&H, 2012), 362.
- 4) 옛 하늘과 옛 땅의 부정적 이미지는 계 20:11에서 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마지막 심판 때 하늘과 땅이 피하여 도망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바다 또한 옛 바다가 사라지고 새 바다가 나타나야 할 것이지만 바다는 그 자체로 완전히 없어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⁵⁾ 따라서 바다를 단순히 물리적 장애물이나 사회적 불안 혹은 혼란으로 이해하는 것은 새 창조 시에 새 바다가 빠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바다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 즉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이해하고, 새 창조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악한 세력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고 보고 있다.⁶⁾ 즉 요한계시록 21:1에서 새 창조 때 바다가 완전한 소멸하는 이유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악의 속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 또한 바다를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다의 속성과 의미를 파악하면서 새 창조 시에 바다의 완전한 소멸에 대한 신학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요한계시록의 바다에 대한 연구는 매튜슨(D. Mathewson)의 2003년 논문 “New Exodus as a Background for ‘The Sea Was No More’ in Revelation 21:1c”와 무(Jonathan Moo)의 2009년 논문 “The Sea That is No More: Rev 21:1 and the Function of Sea Imagery in the Apocalypse of John”에서 심도 깊게 다루어진다.⁷⁾ 두 논문 모두 바다를 창조 모티프와 출애굽 모티프에 나타난 묵시적이고 종말론적 차원의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규정한다. 매튜슨은 요한계시록의 바다의 의미를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 모티프에서 찾고 있으며, 21:1-5를 중심으로 바다의 소멸의 이유를 밝힌다. 무는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바다의 속성을 연구하면서 천상의 바다, 무저갱과 짐승의 기원으로서의 바다, 사람들로 상징된 바다, 바벨론 상거래의 교역 수단으로서의 바다, 죽음과 연관된 바다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새 창조 때에 바다의 사라짐의 이유를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도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바다가 우주적이고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혼돈과

5) Jonathan Moo, “The Sea That is No More: Rev 21:1 and the Function of Sea Imagery in the Apocalypse of John”, *NovT* 51 (2009), 150.

6) 바다를 악과 혼돈의 세력으로 이해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Grant R. Osborne, *Revelation*, 730-731; David E. Aune, *Revelation 17-22*, WBC 52C (Dallas: Word, 1998), 1119;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1041-1042; Ian Boxall, *The Revelation of Saint John*, BNTC (London: Continuum, 2006), 293-294; D. Mathewson, “New Exodus as a Background for ‘The Sea Was No More’ in Revelation 21:1c”, 243-258; Jonathan Moo, “The Sea That is No More: Rev 21:1 and the Function of Sea Imagery in the Apocalypse of John”, 148-167.

7) D. Mathewson, “New Exodus as a Background for ‘The Sea Was No More’ in Revelation 21:1c”, 243-258; Jonathan Moo, “The Sea That is No More: Rev 21:1 and the Function of Sea Imagery in the Apocalypse of John”, 148-167.

악의 세력으로 이해한다. 요한계시록의 바다에 관해서 매튜슨은 21:1에 집중하여 새 출애굽 관점에서 해석하고 무는 전반적 사용 용례를 통해 이해하지만, 필자는 바다의 등장(4:6), 전개(15:2), 그리고 퇴장(21:1)이라는 흐름을 통해 바다의 신학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여러 장면들 가운데 자주 등장하고 문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미를 다양하게 보여 주기 때문에 바다를 오직 하나의 특성과 의미로만 획일화시켜 규정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21:1에서 바다의 완전한 소멸에 대한 선언은 요한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다의 속성과 정체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바다의 퇴장 장면을 중심으로 그와 연결되어 바다의 특성을 보여 주는 장면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다의 퇴장은 무엇보다도 바다의 등장 장면인 4장의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천상의 유리 바다와 연결되고 “유리 바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가진 15장의 천상의 유리 바다와도 연결된다. 그리고 등장과 전개와 퇴장의 장면에서 바다는 동일한 속성과 정체를 가지고 각기 다른 신학적 의미를 전달한다. 또한 필자는 이 세 장면에서 새 출애굽 모티프를 발견하고 우주적, 묵시적, 종말론적 차원에서 바다의 소멸과 함께 이루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구속 사역을 이해하고자 한다.

2.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서의 바다의 등장과 전개와 퇴장

요한계시록에서 바다(θάλασσα)라는 단어는 총 26번 나오고, 4:6에서 시작하여 21:1에서 끝난다.⁸⁾ 바다는, 요한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끝나고 환상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4:6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는 수식어와 함께

8) 계 4:6; 5:13; 7:1, 2, 3; 8:8(두 번), 9; 10:2, 5, 6, 8; 12:12, 18(『개역개정』에는 18절이 없고 17절까지만 있으나, NTG²⁸에는 18절이 기록되어 있고, 『개역개정』은 17절에 NTG²⁸의 18절을 포함하고 있음.); 13:1; 14:7; 15:2(두 번); 16:3(두 번); 18:17, 19, 21; 20:8, 13; 21:1. 바다와 유사한 이미지 — 물과 깊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했다는 측면에서 — 를 가지는 물(ὕδωρ)은 18번(1:15; 7:17; 8:10, 11[두 번]; 1:6; 12:15; 14:2, 7; 16:4, 5, 12; 17:1, 15; 19:6; 21:6; 22:1, 17), 못(λίμνη, 항상 불과 결합된 불못[ἡ λίμνη τοῦ πυρός]으로 나옴)은 6번(19:20; 20:10, 14[두 번], 15; 21:8), 그리고 무저갱(ἄβυσσος)은 7번(9:1, 2, 11; 11:7; 17:8; 20:1, 3) 나온다. 무저갱은 땅 아래의 세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참고. 5:3) 욕 38:16의 칠십인역은 이것을 “바다의 샘”(πηγὴν θαλάσσης)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Richard B. Vinson, “The Sea of Glass, the Lake of Fire, and the Topography of Heaven in Revelation”,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45 (2018), 128.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계 13:1) 무저갱으로부터도 올라오는데(9:1, 2, 11; 11:7, 17:8; 20:1, 3), 이것은 바다와 무저갱이 동일한 것임을 암시한다. Simon J.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NTC 20 (Grand Rapids: Baker, 2001), 285-286; David E. Aune, *Revelation 6-16*, WBC 52B (Dallas: Word, 1998), 525-527.

처음 등장하고, 15:2에서 “불이 섞인 유리”라는 심판의 이미지와 함께 나타났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묘사되는 21:1에서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선언을 끝으로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의 처음 등장과 마지막 등장의 묘사는 성격상 차이를 보인다. 바다의 첫 등장은 하늘 보좌에 대한 요한의 환상으로부터 시작되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ἐνώπιον τοῦ θρόνου ὡς θάλασσα ὑαλίνη ὁμοία κρυστάλλῳ, 4:6)가 있다고 묘사된다. 하지만 바다의 마지막 퇴장은 새 창조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끝나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ἡ θάλασσα οὐκ ἔστιν ἔτι, 21:1)라고 서술하면서 바다의 존재 자체의 완전한 소멸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 후에 바다는 새 창조의 세계에 대한 묘사(21-22장)에서 다시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바다의 첫 등장에서 바다를 하늘 보좌를 장식하고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고 아름답게 묘사하다가 마지막 새 창조 때에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완전한 소멸 선언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서로 매우 모순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원래는 선한 바다였는데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악한 바다가 되어 소멸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바다가 나오는 어떤 장면에서도 바다가 타락한다는 암시를 보여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무엇보다도 바다의 퇴장 장면(21:1)에서 새 창조 때에 바다가 하늘과 땅과는 다르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바다가 악의 속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렇다면 바다의 등장 장면(4:6)에 나오는 바다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비록 이 장면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묘사되지만, 유리 바다는 15:2-3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새롭게 그려진다. 이 유리 바다는 ‘불이 섞여’ 있고, 사탄의 세력을 이긴 성도들이 유리 바다 가에(또는 위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타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연출된다. 즉 15장에 나오는 유리 바다는 묵시적이고 종말론적 차원에서 혼돈과 악의 세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암시되고, 이는 출애굽기 14-15장의 홍해 사건을 반영한다.)⁹⁾ 요한계시록 4:6과 15:2의 바다는 ‘유리 바다’(θάλασσα ὑαλίνη)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할 뿐

9)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789; G. R. Beasley-Murray, *The Book of Revelation*, NCBC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1981), 235; D. Mathewson, “New Exodus as a Background for ‘The Sea Was No More’ in Revelation 21:1c”, 255; Jonathan Moo, “The Sea That is No More: Rev 21:1 and the Function of Sea Imagery in the Apocalypse of John”, 153-155.

아니라 천상에 있는 바다라는 측면과 이김 사상에서도 일치한다.¹⁰⁾ 따라서 이 두 구절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이해한다면 4:6에 나오는 바다의 특성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바다의 등장과 전개와 퇴장의 각각의 장면에서 바다의 정체와 속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1. 바다의 등장(계 4:6) — 악의 철저한 굴복

빌(G. K. Beale)은 요한계시록 4:6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솔로몬 성전의 물두덩, (2)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과 천상의 광채, 그리고 특별히 (3) 홍해와 연관된 천상적 유비.”¹¹⁾ 첫 번째 견해에 대해 스나이더(B. W. Snyder)는 요한의 환상을 이루는 모든 장면들의 배경은 천상의 장막 또는 성전으로 추정되고, 특별히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4-5장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는 장막의 지성소를 상징한다고 말한다.¹²⁾ 그리고 4:6의 유리 바다는 성막이나 성전 바깥뜰에 있는 물두덩을 의미한다(출 30:18; 왕상 7:39; 대하 4:10; 특히 왕상 7:39과 왕하 4:10은 물두덩을 바다로 표현함).¹³⁾ 그녀는 이 물두덩이 지성소 밖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새 창조 때에 바다가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새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임재한 지성소가 임하는 것인데 물두덩, 즉 바다는 지성소 밖에 있기 때문에 새 창조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과 달리 제외되어야 한다.¹⁴⁾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무는 요한계시록 4:6에서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ἐνώπιον τοῦ θρόνου) 놓여 있다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 밖에 물두덩(바다)이 있어서 새 창조 때에 바다가 제외된다는 스나이더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한다.¹⁵⁾

10)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327, 790-791.

11) Ibid., 327.

12) B. W. Snyder, “Combat Myth in the Apocalypse: The Liturgy of the Day of the Lord and the Dedication of the Heavenly Temple”, Ph.D. Dissertation (Graduate Theological Union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1), 162-168. 참고.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789; R. Stefanović,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Sealed Book of Revelation 5”, Ph.D. Dissertation (Andrews University, 1995), 202-206; J. M. Ford, *Revelation: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75), 70-74.

13) B. W. Snyder, “Combat Myth in the Apocalypse: The Liturgy of the Day of the Lord and the Dedication of the Heavenly Temple”, 162-168.

14) Ibid.

15) Jonathan Moo, “The Sea That is No Mor: Rev 21:1 and the Function of Sea Imagery in the Apocalypse of John”, 153.

필자는 빌이 나열한 세 가지 견해들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두 번째 견해와 관련해서는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오스본(Grant R. Osborne)으로, 그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과 거룩함과 위엄을 의미하는 장엄한 묘사라고 주장한다.¹⁶⁾ 이 바다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분리시키는 역할(참고. 창 1:7과 겔 1:22 등에서 유추)을 하면서 하나님의 초월과 거룩함을 보여주고, 또한 바다를 수정과도 같은 유리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엄을 반사하여 장엄하게 드러낸다.¹⁷⁾ 하지만 그는 요한계시록 4:6이 15:2와 21:1과 연결된다고 하면서 바다는 4:6에서 경배의 근원, 15:2에서 심판의 초석, 그리고 21:1에서 새 창조를 위한 악의 근절로 각기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⁸⁾ 하지만 하나님의 장엄함을 보여주기 위한 경배의 근원으로서의 바다가 새 창조 때에 제거되어야 할 존재가 된다는 것은 모순적이며 일관성 없는 해석이다. 필자는 4:6의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장엄한 표현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이면에는 우주적 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묘사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¹⁹⁾ 무엇보다도 4:6의 바다를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21:1에서 바다의 사라짐을 설명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광채를 보여주기 위해 화려한 수식과 더불어 바다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21-22장의 새 창조의 빛나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할 때도 4:6처럼 바다를 더욱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게 묘사했어야 한다. 하지만 새 창조 때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선언한다.

먼저 요한계시록 4:6에서 바다를 수식하는 표현들에 대한 구약적 배경과 의미를 살펴본다. 요한계시록의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와 가장 유사한 표현은 에스겔 1:22의 “수정(또는 얼음: 히브리어 קָרָקְלָם 는 얼음을 뜻하고, 칠십인역은 이것을 κρύσταλλος[수정]로 번역) 같은 궁창”(קָרָקְלָם כְּעֵין קָרָקְלָם; στερέωμα ὡς ὄρασις κρυστάλλου, LXX, 수정의 모양과 같은 궁창)이다. 요한이

16) Grant R. Osborne, *Revelation*, 231-232.

17) Ibid.

18) Ibid., 232.

19) G. B. Caird, *A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St. John the Divine* (New York: Harper & Row, 1996), 65-68; M. Robert Mulholland Jr., *Revelation: Holy Living in an Unholy World* (Grand Rapids: Zondervan, 1990), 150-154; P. Carrington, *The Meaning of Revelation* (London: SPCK, 1931), 114; G. K. Beale, “The Problem of the Man from the Sea in 4 Ezra 13 and Its Relation to the Messianic Concept in John’s Apocalypse”, *NovT* 25 (1983), 182-188;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327.

에스겔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이 두 구절은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에 나오는 바다(θάλασσα)와 궁창(צִקְזָ, σπερέωμα)은 유사한 심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천상 보좌 바닥을 가리킨다.²⁰⁾ 에스겔 1:22의 궁창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탱하는 단단한 표면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플랫폼이다.²¹⁾ 요한은 에스겔의 궁창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하나님의 천상 보좌를 바다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묘사한다. 또한 에스겔 1:22의 궁창은 창세기 1:7을 반영하고 있으며, 창세기 1:7에서 궁창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뉜다. 구약과 초기 유대 문헌에서는 ‘태고의 세상의 바다’(the primeval world ocean)가 두 부분으로 나뉘고, 위에 있는 바다에 대해서 ‘하늘의 견고한 천장 위에 있는 하늘 바다’(a heavenly ocean above the solid vault of heaven)로 말한다(“시 29:10; 104:3; 148:4; 1 Enoch 54:7; 2 Enoch [Rec. J] 3:3; [Rec. A] 4:2; T. Abr. [Rec. B] 8:3; T. Adam 1:5; T. Levi 2:7; Gen. Rab. 1:6; Apoc. Paul; 21”).²²⁾ 이렇게 하늘의 견고한 천장 위에 하늘 바다가 있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 바다가 있다고 묘사한다. 빌에 따르면, “후기 유대 문헌은 출애굽기 24:10과 에스겔 1:26을 근거로 인용하면서 ‘바다’의 푸른색을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바닥과 보좌 자체와 비교하고 있다(b. Sotah 17a; b. Hullin 89a; b. Menahoth 43b).”²³⁾ 즉 후기 유대 문헌에서도 하늘 보좌의 바닥은 바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요한은 바다를 ‘수정’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다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유리’라는 수식어는 하나님의 보좌실의 장엄을 반사하고 있으며, 결국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장대하게 표현한다.²⁴⁾

하지만 화려한 수식어로 묘사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다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나 장식품에 불과한 것일까?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요한의 바다의 사용을 살펴보고 거시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바다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면 4:6에 나오는 바다에는 어떤 특별한 속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것은 빌이 제시한 세 번째 견해인 홍해와 연관된

20)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327. 참고. Grant R. Osborne, *Revelation*, 232.

21) Leslie C. Allen, *Ezekiel 1-19*, WBC 28 (Dallas: Word, 1998), 34-35; L. E. Cooper, *Ezekiel*, NAC 17 (Nashville: Broadman&Holman, 1994), 70.

22) David E. Aune, *Revelation 1-5*, 296.

23)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328.

24) Grant R. Osborne, *Revelation*, 231-232; David E. Aune, *Revelation 6-16*, 871.

것으로 바다는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간주된다.²⁵⁾ 이러한 이해는 15:2-3의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는 표현과 출애굽기 15장의 홍해 사건을 연상케 하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장면에서 찾을 수 있다.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에서 바다(또는 물)는 우주적이고 목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혼돈과 악의 세력이며 동시에 악을 파멸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제시되는데,²⁶⁾ 요한계시록 15:2의 바다 또한 이러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21:1에서 새 창조 때에 바다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의 백성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이기 때문이다.²⁷⁾ 요한계시록 4:6의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란 표현은 바다가 잠잠히 있다는 것으로, 요동치는 바다와 대조적인 묘사로서,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혼돈과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통제 아래 놓여 잠잠하게 되고 무력화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²⁸⁾ 빌이 제시한 두 번째 견해는 세 번째 견해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수정과도 같은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장엄한 묘사는 혼돈과 악의 세력인 바다가 정복되고 무력화되어 있음을 통해 보여 준다.

2.2. 바다의 전개(계 15:2) — 심판의 도구로서의 악

요한계시록 15:2의 “불이 섞인 유리 바다”(θάλασσαν ὑαλίνην μεμιγμένην πυρί)는 출애굽의 홍해 바다를 상기시키며 바다의 속성을 보여 준다.²⁹⁾ 특

25) 바다가 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은 계 4:6을 둘러싼 문맥상 어디에도 악에 대한 전쟁이나 진압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Grant R. Osborne, *Revelation*, 232; Simon J.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189. 하지만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후속적으로 나오는 바다의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혼돈과 악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바다의 이미지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계 4:6을 둘러싼 좁은 문맥 속에서 바다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와 흐름을 통해 바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William H. C. Propp, *Exodus 1-18: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 (New York: Doubleday, 1999), 557; D. Mathewson, “New Exodus as a Background for ‘The Sea Was No More’ in Revelation 21:1c”, 245-246.

27) D. Mathewson, “New Exodus as a Background for ‘The Sea Was No More’ in Revelation 21:1c”, 258.

28)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327-328; Ian Boxall, *The Revelation of Saint John*, 86-87.

29) 빌(G. K. Beale)은 ‘불이 섞인 바다’와 관련하여 단 7장과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며, 그 예로 10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불의 강’(ποταμός πυρός)의 이미지와 11절에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 것 등을 열거한다.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790.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이미지들과 주제들을 많이 반영하는데, 필자는 계 15:2가 단 7:10-11을 함의하기도 하지만 홍해 사건과 그에 따른 바다의 이미지와 속성을 더욱 분명하게 반영한다고 본다.

히 15:2-3에서 짐승, 즉 악의 세력을 이긴 승리한 성도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τὴν ᾠδὴν Μωϋσέως)를 부르는 장면은 출애굽기 15장의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불렀던 노래를 분명히 연상시키며, 요한계시록 15:1의 “재앙”과 5절의 “증거 장막”이란 단어 속에서도 출애굽의 분위기를 확연히 드러낸다.³⁰⁾ 또한 15:2의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이미지는 이어지는 16장에서 온 세상에 쏟아 부어질 재앙에 대한 전조가 된다.³¹⁾

요한은 바다에 ‘불’(πῦρ)을 결합시켜 불이 섞여 있는 바다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은 심판을 상징한다.³²⁾ 오니(David E. Aune)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심상은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천상의 바다 모티프와 그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불의 강(들)(“Dan 7:10; 1 Enoch 14:19; 71:2; 3 Enoch 18:19”) 모티프가 결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³³⁾ ‘불로’ 섞여 있다고 할 때 그리스어 πυρί은 수단 여격으로 불이 수단으로 사용됨을 암시하고, 불에 의한 심판은 이어지는 16장의 재앙들과 연결된다.³⁴⁾ 또한 앞서 유리 바다와 연관된 요한계시록 4:5-6의 ‘보좌 앞에 켜 일곱 등불’의 불 역시 심판의 의미를 내포한다.³⁵⁾ 바다는 ‘못’(λίμνη)과도 유사한 심상을 보여 주는데, 이 못은 항상 불과 결합하여 ‘불못’(ἡ λίμνη τοῦ πυρός)으로 표현되며(계 19:20; 20:10, 14, 15; 21:8) 심판을 가리킨다.³⁶⁾ 바다가 “불이 섞인”(μεμιγμένην πυρί) 것으로 묘사된 이유는 심판의 임박성을 가리키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³⁷⁾ 특별히 하늘 바다와 불의 심판은 *T. Levi* 2:7과 3:2와 *Sib. Or.*

30)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789; G. B. Caird, *Revelation*, 197.

31) Jonathan Moo, “The Sea That is No More: Rev 21:1 and the Function of Sea Imagery in the Apocalypse of John”, 154.

32) 요한계시록에서 불은 총 23번 나오고 계 13:13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판을 가리키는 은유로 사용된다.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789.

33) David E. Aune, *Revelation 6-16*, 870.

34)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 있는 불’(또는 ‘불타는 바다’)의 이미지는 성도의 불같은 시련이나 불로 정화되는 성도의 세례 등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서 언제나 불과 바다는 각각 심판과 악의 이미지들이다.”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789. 무 또한 요한계시록의 불 이미지는 거의 항상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cf. 8:5, 7, 8; 9:17-18; 11:5; 14:10; 16:8; 18:8; 19:20; 20:9, 10, 14-15; 21:8”). Jonathan Moo, “The Sea That is No More: Rev 21:1 and the Function of Sea Imagery in the Apocalypse of John”, 154.

35)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789-790.

36) Grant R. Osborne, *Revelation*, 562.

37) David E. Aune, *Revelation 6-16*, 871.

5.377-378에 잘 나타나 있다.³⁸⁾ 천상의 바다가 불과 눈과 얼음으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에게 쏟아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첫 번째 하늘로부터 들어갔고, 거기에 거대한 바다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심판의 날을 위해 준비된 불과 눈과 얼음을 가지고 있다. (*T. Levi* 2:7; 3:2)

그리고 평야는 다시금 잔인한 전쟁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불이 하늘 별판으로부터 죽을 운명에 있는 인간들에게 쏟아 부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 (*Sib. Or.* 5.377-378)³⁹⁾

특별히 요한계시록 15:2-3의 묘사는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명확하게 반영한다. 보캄(Richard Bauckham)은 요한계시록의 세 개의 주요 상징적 주제들 중의 하나는 ‘종말론적 출애굽’(the eschatological exodus)이라고 보고 그 중에 홍해 사건을 언급한다. “[계] 15:2-4는 하늘에서 승리한 기독교 순교자들이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들은 자신들이 건넜던 천상의 홍해 바닷가에 서서 홍해에서 바로로부터 구원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노래를 부르고 있다.”⁴⁰⁾ 또한 요한계시록 15-16장의 하나님의 심판 재앙들은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모형으로 형성되었고, 16:18은 ‘시내 산의 신현(the Sinai theophany)’을 반영한다.⁴¹⁾ “Mekilta de Rabbi Ishmael, Beshallah 5.15 (출 14:16-21에 대하여)와 *ARN* 30a에서는 ‘유리 바다’와 출애굽의 홍해가 결합”되어 나오는데, 출애굽기 15:8의 “깊음이 영기었다”(『개역개정』은 “큰 물이 ... 영기니이다”로 번역)에 근거하여 바다가 영긴 것이 마치 유리그릇처럼 보였다고 했고, *ARN*(*Abot de Rabbi Nathan*)은 이에 덧붙여 유리 중앙에 불이 있었다고 한다.⁴²⁾ 요한계

38) Jonathan Moo, “The Sea That is No More: Rev 21:1 and the Function of Sea Imagery in the Apocalypse of John”, 154.

39) Robert Henry Charles, ed., *Pseudepigrapha of the Old Testament*, vol. 2 (Oxford: Clarendon Press, 1913), 304-305, 404. 한글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참고. Jonathan Moo, “The Sea That is No More: Rev 21:1 and the Function of Sea Imagery in the Apocalypse of John”, 154.

40) 보캄(Richard Bauckham)은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상징적 주제들을 “메시아 전쟁”, “종말론적 출애굽”,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증언자”로 제시한다. 특히 종말론적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묘사하고 홍해 사건을 상기시키는 장면들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67-73(특별히 71쪽을 보라.).

41) *Ibid.*, 71.

42)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791-792. 참조. M. McNamara, *The New Testament and the Palestinian Targum to the Pentateuch*, AnBib 27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6), 203-204.

시록 15장의 “불이 섞인 유리 바다”란 이미지도 후대의 랍비 문헌에서 출애굽의 홍해와 모세의 노래와 연관되어 나온다.

요한계시록 15:2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승리한 성도들이 바다 ‘위에’ 혹은 ‘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여기서 전치사 ἐπί가 목적격을 취할 때 ‘위에’(on, over)나 ‘가에’(at, by) 등으로 해석된다.⁴³⁾ 요한계시록의 번역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전치사 ἐπί가 동사 ἵστημι(서다)와 함께 사용될 때 3:20과 7:1에서는 ‘가에’로, 11:11; 12:18(12:17, 『개역개정』); 14:1에서는 ‘위에’로 번역한다.⁴⁴⁾ 빌은 ἵστημι와 ἐπί의 결합 형태를 10:5, 8에서 찾으려 천사가 ‘바다 위에(on) 서 있는’으로 번역하는데, 이는 15:2가 10:5, 8의 용례와 가장 잘 맞고 따라서 15:2의 ἐπί를 ‘위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⁴⁵⁾ 하지만 오니는 ἐπί를 ‘가에’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제시한다.⁴⁶⁾ 하지만 요한계시록 15:2를 출애굽기 15-16장의 역사적 사건의 정황을 전제로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맥락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역사적 틀에 맞춰 해석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 전쟁의 승리는 바다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⁴⁷⁾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인 승리(정복)는 15:2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에 대해 ‘승리한 자들’(τοὺς νικῶντας)은 바다의 전장 위에 장엄하게 서 있는 것이다. 바다 위에서 서 있는 성도들은 ‘시험과 세상의 핍박과 우주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이기고 정복한 승리자의 모습이다.⁴⁸⁾ 또한 바다 위에서 서 있는 장면은 욥기 9:8에서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의

43) W. Bauer, F. W. Danker, W. F. Arndt and F. W.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ev. ed., Frederick William Dank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363.

44)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791-792. 대표적으로 NRS, NIV, NKJ, ESV 등은 각각의 모든 구절들에서 ἐπί를 동일하게 번역한다. 여기서 ‘위에’(on)는 바다의 ‘단단한 표면’(solid surface)을 의미한다. R. H.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7), 286. 참고. 하지만 계 15:2의 ἐπί는 NKJ에서는 ‘위에’(on)로, NRS, NIV, ESV에서는 ‘가에’(beside)로 다르게 번역한다.

45)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791. 계 10:5, 8에서 ἐπί는 소유격을 취하지만 파러(A. Farrer)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소유격과 목적격을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A. Farrer, *The Revelation of St. John the Divine* (Oxford: Clarendon, 1964), 171.

46) David E. Aune, *Revelation 6-16*, 872.

47)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791; Grant R. Osborne, *Revelation*, 562.

48) Grant R. Osborne, *Revelation*, 562.

장면을 연상케 하며, 이것은 태초의 바다 괴물이나 용을 정복하는 것으로 우주적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보여 준다.⁴⁹⁾ 시편 29:3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에서 “많은 물”은 출애굽기 15장의 홍해 바다와 이것이 상징하는 혼돈 세력을 반영하고, 많은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악의 세력에 대한 정복자와 승리자로 묘사된다.⁵⁰⁾ 이어지는 시편 29:10의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에서도 홍수 — 바다와 많은 물과 동일한 차원으로 이해 — 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악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묘사한다.⁵¹⁾ 따라서 성도가 바다 위에서 있는 장면은 승리자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 승리는 혼돈과 악으로 상징되는 바다를 정복하여 그 위에서 있는 것을 암시한다. 결론적으로 구약(특히 출애굽의 홍해 바다와 관련하여)과 제2성전 유대 문헌들 가운데 바다는 혼돈과 악의 세력이며 동시에 심판과 파멸의 도구로 제시되는데, 요한계시록 15:2의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유리 바다 위에서 있는’의 이미지는 혼돈과 악의 세력인 바다가 정복되었고 동시에 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3. 바다의 퇴장(계 21:1) — 악의 완전한 소멸

요한계시록 21:1에서 바다는 마지막으로 나타나고 이후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 새 창조의 묘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나타남과는 대조적으로 바다의 완전한 소멸을 선언한다. 땅과 하늘은 앞서 20:11에서 최후 심판의 흰 보좌 앞에서 피하여 도망갔고,⁵²⁾ 새 창조 때인 21:1에서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고 묘사한다. 이것은 새 창조를 위해 옛 것의 사라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새 창조에 있어서 새 땅과 새 하늘은 나타나지만 새 바다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한다. 이렇게 새 창조의 세계에서 바다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바다가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암시한

49) David J. A. Clines, *Job 1-20*, WBC 17 (Dallas: Word, 1998), 230-231.

50) Peter C. Craigie, *Psalms 1-50*, WBC 19, 2nd ed. (Nashville: Nelson, 2004), 247.

51) Ibid., 248-249;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328.

52) 빈슨(Richard B. Vinson)은 요한계시록에서 대부분의 경우 바다를 인격화(personification) 시켜 묘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 단지 바다가 행동하는 장면의 경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인격화된다. Richard B. Vinson, “The Sea of Glass, the Lake of Fire, and the Topography of Heaven in Revelation”, 127. 하지만 바다는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서 인격화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삼중으로 묘사되는 하늘, 땅, 바다의 트리오 중에서 20:11은 바다를 제외시키고 하늘과 땅이 ‘도망갔다’(ἔφυγεν)고 묘사한다. 이것은 분명히 하늘과 땅을 인격화시킨 것이다. 바다를 제외한 이유는 20:13에서 바다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바다는 파멸의 장소, 악의 영역으로 사망과 음부를 내어 놓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바다가 도망간다는 인격화된 표현이 없지만 삼중으로 표현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하늘과 땅이 인격화된 것처럼, 바다 또한 하늘과 땅처럼 인격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무가 올바르게 지적하듯이, 바다는 새 창조 시에 사라질 여섯 가지 부정적 이미지들 — ‘사망’(θάνατος, 21:4), ‘슬픔’(πένθος, 21:4), ‘울부짖음’(κραυγή, 21:4), ‘고통’(πόνος, 21:4), ‘저주 받을 일’(κατάθεμα, 22:3), ‘밤’(νύξ, 22:5) — 과 함께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제시된다.⁵³⁾ 매튜슨은 21:1-5의 본문을 새 창조 때에 나타날 것들과 사라질 것들을 교차대칭구조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A. 새 하늘과 새 땅(1a절)
 - B.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사라짐(1b절)
 - C.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음(1c절)
 - D. 새 예루살렘—신부(2절)
 - (환상에서 청중으로 전환)
 - D.’ 그의 신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심(3절)
 - C.’ 죽음, 슬픔, 아픔이 더 이상 있지 않음(4a-c절)
 - B.’ 처음 것들의 사라짐(4d절)
 - A.’ 만물이 새로워짐(5절)⁵⁴⁾

이 구조에서 C(1c절)와 C’(4a-c절)는 대칭되고, 새 시대에는 사라질 것들에 대한 표현인 ‘다시 있지 않다’(οὐκ ἔστιν ἔτι)는 형식이 두 곳 모두에서 나온다. 바다의 소멸(1c절)은 새 창조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죽음, 슬픔, 아픔(4a-c절)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21:1에서 바다는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한 것으로 상징된다.⁵⁵⁾ 20:13에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사망과 음부 또한 죽은 자들을 내준다. 따라서 바다는 사망과 음부와 사실상 동의어

53) Jonathan Moo, “The Sea That is No More: Rev 21:1 and the Function of Sea Imagery in the Apocalypse of John”, 150-151. 계 21:1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ἡ θάλασσα οὐκ ἔστιν ἔτι)에서 그리스어 표현 “οὐκ ἔστιν ἔτι”(다시[더 이상] 있지 않다)는 다른 여섯 가지 부정적 이미지들에서도 시제를 제외하고(현재형인 ἔστιν 대신 미래형인 ἔσται 사용) 동일하게 나타난다.

54) D. Mathewson, “New Exodus as a Background for ‘The Sea Was No More’ in Revelation 21:1c”, 245; Grant R. Osborne, *Revelation*, 730-731.

55) D. Mathewson, “New Exodus as a Background for ‘The Sea Was No More’ in Revelation 21:1c”, 245; Anton Vögtle, *Das Neue Testament und die Zukunft des Kosmos* (Düsseldorf: Patmos, 1970), 116; M. Rissi, *The Future of the World: An Exegetical Study of Revelation 19.11-22*, SBT 23 (London: SCM, 1972), 55; A. Yarbro Collins, *The Apocalypse*, NTM 22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0), 144; C. H. Gibl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Open Book of Prophecy*, GNS 34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1), 194; E. Schüssler-Fiorenza, *Revelation: Vision of a Just World*, PC (Minneapolis: Fortress, 1991), 110; David E. Aune, *Revelation 17-22*, 1119;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1041-1043; Ian Boxall, *The Revelation of Saint John*, 293-294; Grant R. Osborne, *Revelation*, 732-733.

로, 둘 다 ‘악의 세계에 대한 의인화’라고 할 수 있다. “바다는 12:12와 13:1에서 악의 화신이 되고, 사망과 음부는 1:18; 6:8; 20:13-14에서 의인화된다.”⁵⁶⁾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망간 하늘과 땅과는 다르게 바다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사망과 음부와 동일시되며 악의 속성을 가진다.⁵⁷⁾ 사망과 음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장차 하나님에 의해 무력화될 사탄의 권세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⁸⁾ 그렇다면 사망과 음부와 동일시되는 바다는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듯이(20:10, 14) 바다 또한 영원히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바다의 소멸될 운명은 21:1의 새 창조 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에서 최종적으로 선언된다. 빌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나오는 바다의 정체(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1) 우주적 악의 기원(특별히 구약의 배경 하에서: 4:6; 12:18[12:17, 『개역개정』]; 13:1; 15:2), (2)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일으키는 불신하는 반역의 나라들(12:18[12:17, 『개역개정』]; 13:1; 사 57:20; 참고. 계 17:2, 6), (3) 죽은 자들의 거처(20:13), (4) 세상의 우상 교역 활동의 근원적 장소(18:10-19), (5) 때때로 ‘땅’과 함께 언급되기도 하고 옛 창조의 한 부분으로서의 바다가 이것의 총체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제유적으로 사용된 물의 문자적 집합체(5:13; 7:1-3; 8:8-9; 10:2, 5-6, 8; 14:7; 16:3[?]).”⁵⁹⁾ 그는 21:1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바다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바다의 다섯 가지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새 창조와 관련되는지를 요약해서 보여 주는 것 같다고 말한다.⁶⁰⁾

56) 오스본(Grant R. Osborne)은 계 20:12가 의인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20:13-15를 악인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각각 묘사한다고 말하고, 20:13에서 행위에 따른 심판은 악인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한다. Grant R. Osborne, *Revelation*, 721-724.

57) Ibid., 723. 오스본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사망과 음부는 악의 세력으로 의인화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 속으로 내던져지게 되며(19:20; 20:10), 하나님께서 악을 근원부터 제거해버리는 단계에서 최종적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참고. 계 6:8에서 넷째 청황색 말을 탄 자에 대해 묘사할 때 사망과 음부가 언급된다.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1035.

58) 빌은 사망과 음부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를 소개한다. (1) 죽음 자체의 영원한 소멸, (2) 육체적 죽음에 대한 비유, (3) 용기가 내용물을 대처하는 환유로서 파멸 속으로 던져지는 불신자들, (4) 불못과의 합병 또는 대체, (5) 사탄의 세력. 빌은 이들 견해 모두가 가능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선호한다.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1034-1035. 오스본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 견해를 받아들인다. Osborne, *Revelation*, 723-724.

59)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1041-1042.

60) Ibid., 1042.

물론 빌의 주장대로 21:1의 바다가 요한계시록 전반에 나오는 이미지와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⁶¹⁾ 이 구절에서 바다는 구체적으로 혼돈과 악의 세력 혹은 실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땅 또한 바다와 유사하게 짐승이 나오는 근원(13:11), 악의 처소(12:9),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과 장소(12:12; 20:11) 등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1의 바다를 단순히 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포괄적 차원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요한계시록 21:1의 바다는 우주적, 묵시적, 종말론적 차원에서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매튜슨은 이러한 차원의 바다(또는 물)⁶²⁾의 속성을 구약의 “첫 창조(창 1:2, 2:9-10; 참고. 시 33:7; 렘 5:22), 홍수(창 8:1-13), 그리고 홍해에서의 구원(출 14:21-22; 시 106:9)” 사건에서 찾는다.⁶³⁾ 그리고 이 세 개의 사건들에서 하나님은 물(바다)을 통제하는 능력을 보여 주시고, 물(바다)의 굴복이라는 주제를 통해 만물의 파괴와 우주의 재창조를 나타내신다.⁶⁴⁾ 세일해머(J. Sailhamer)에 따르면 창세기 1장의 물의 분리와 마른 땅의 예비는 홍수(창 6-9장)와 홍해(출 14-15장) 사건과의 연속성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물은 마른 땅에 거주하는 인간에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이 제거되어야 한다.⁶⁵⁾

필자 또한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는 창세기의 첫 창조와 홍수 심판을 통한 세상의 재창조⁶⁶⁾를 반영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이라고 생각한다. 첫 창조 때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적 능력을 가지고 물에 대한 통제력과 행사를 보여주신다.⁶⁷⁾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창 1:2), 물을 나

61) 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에 대한 언급들을 부정적인 다섯 가지 특성들로 제시하는데, 이는 바다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거나 위협하거나 환난과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 오스본은 빌이 제시한 다섯 가지 특성들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성들이 주되게 반영되어 있다고 말한다. Grant R. Osborne, *Revelation*, 730-731.

62) 구약에서 나오는 바다는 많은 부분에서 물과 깊음 등과 동일한 차원에서 상호 교환되어 사용되고, 따라서 창조, 홍수, 홍해 사건에 나오는 물, 깊음, 바다 또한 동일한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63) D. Mathewson, “New Exodus as a Background for ‘The Sea Was No More’ in Revelation 21:1c”, 245

64) Ibid.

65) J.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 A Biblical-Theological Commentary* (Zondervan: Grand Rapids, 1991), 91.

66)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만물을 새롭게(계 21:5) 하는 완전한 새 창조를 고대하는 재창조를 암시한다. G. K. Beale,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The Unfolding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414.

67)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고대 근동 신화와 연결시켜서 창 1:2에 나오는 깊음(תְהוֹמִים)과 물(מַיִם)을 혼돈과 무질서, 악 등의 하나님의 대적 세력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참고. 고대 근동 신화와 연결하여 깊음, 물 등에 대한 연구는 Philippe Reymond, *L'eau, sa vie, et sa*

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창조하신다(1:6-7). 또한 홍수 때 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패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⁶⁸⁾ 이러한 창조와 홍수 사건 때 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행사와 통제와 심판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명확히 드러난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쫓기는 그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바다 한 가운데서 수장하여 파멸시킨다(출 14장). 하나님은 물(바다)에 대한 주권적 행사를 보이시고 또한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와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물(바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드러내고 행사하는 배경과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창조(창 1장)와 홍수(창 6-9장)와 출애굽의 홍해(출 14-15장) 사건을 연결시킨다. 하지만 필자는 요한계시록 21:1의 바다는 궁극적으로 출애굽 홍해 사건에서 모세의 노래(출 15장)에 나오는 우주적, 묵시적, 종말론적 차원으로 묘사된 바다(물)를 가리킨다고 본다. 왜냐하면 출애굽 14장의 물리적 물로서의 바다는 이어지는 15장에서 혼돈과 악의 세력이면서 동시에 악을 파멸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이중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것은 요한계시록 21:1의 바다가 함의하고 있는 우주적, 묵시적, 종말론적 차원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의 바다 등장과 전개와 퇴장의 신학적 의의

출애굽기 14장의 역사적 사건의 배경으로서의 홍해 바다는 이어지는 15장에서 우주적, 묵시적, 종말론적 차원에서 재해석되어 진술되고, 이러한 바다에 대한 이해는 이스라엘 후손들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새롭

signification dans l'Ancien Testament (VTSup 6; Leiden: Brill, 1958)을 참조하라. 하지만 창 1장 어디에도 깊음과 물을 어떤 악한 힘이나 세력으로 이해하고 전쟁과 파괴와 정복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는다.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1. (Dallas: Word, 1998), 16; K. A. Mathews, *Genesis 1-11:26*, NAC 1A. (Nashville: Broadman&Holman, 1996), 134; Claus Westermann, *Genesis 1-11*, CC, trans. J. J. Scullion (Minneapolis: Fortress, 1994), 104-105.

68) 홍수 사건 때의 깊음과 물(특히 창 7:11; 8:2)을 창 1:2의 깊음과 물과 같이 혼돈과 무질서의 악의 세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Graydon F. Snyder, "Sea Monsters in Early Christian Art", *BR* 44 (1999), 15. 비록 창 7:11과 8:2의 "깊음"이란 단어는 창조 때의 "깊음"(1:2)을 연상시키지만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차용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매튜스(K. A. Mathews)는 창 7:11의 "큰 깊음"은 6:5을 반영하는데, 특히 7:11에서 수식어 '큰'은 6:11의 인간의 악함의 심각성을 가리키는 것과 연관된다고 말한다. K. A. Mathews, *Genesis 1-11:26*, 376.

게 해석되고 변화되고 진보한다.⁶⁹⁾ 출애굽기 15:8은 이렇게 재해석된 바다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깊음(מַיִם, 『개역개정』은 “큰 물”로 번역)이 바다 가운데 영긴다’에서 깊음은 고대 세계에서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표현은 마치 혼돈과 무질서의 황폐케 하는 반역적인 물(깊음)이 지하 세계의 감옥으로부터 잠시 풀려나 바다 가운데 잠잠케 되고 영겨 굳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듯하다.⁷⁰⁾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인 바다(물, 깊이)를 통제하고 사용하셔서 대적들을 수장시켜 파멸로 이끄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혼돈의 세력인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길을 내어 마른 땅에 되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바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원하신다(15:19).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구원하신 반면, 애굽 군대에게는 바다를 사용하셔서 파멸시키신다. 하나님은 바다를 자신의 주권적 통제 아래 놓여 있게 하고, 심판을 위해 사용하며, 구원을 위해 마르게 하신다. 홍해 사건에서 보여 준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는 지금껏 살펴본 바다와 관련된 요한계시록의 세 구절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 바다는 하늘 보좌 앞에서 완전히 굴복되고 통제되어 잠잠히 있게 되고(계 4:6), 악의 파멸을 위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며(15:2), 새 창조 때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완전히 마르고 소멸하게 된다(21:1).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백성에 대한 구원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대를 거쳐 그들의 시대의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출애굽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한다. 출애굽의 회상은 고난 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과거에 출애굽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핍박과 압제의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출애굽의 형태로 다시금 나타날 것이라고 표현된다. 모세 오경 이후의 후대의 구약의 글들에서 처음 출애굽을 모형으로 한 새 출애굽의 소망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홍해 사건은 자주 언급된다. 특히 시편

69) William Richard Stegner, “Jesus’ Walking on the Water: Mark 6:45-52”, Craig A. Evans and W. R. Stegner, eds., *Gospels and the Scriptures of Israel*, JSNTSup 10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4), 215-216. 쿡(Stephen L. Cook)은 발전된 묵시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계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티븐 L. 쿡, 『묵시문학』, 차준희 역, IBT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9. 요한계시록의 묵시적 바다가 구약 본문들에서 묵시적 차원으로 묘사되는 바다와 어떻게 연결되어 발전하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바다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 준다.

70) John I. Durham, *Exodus*, WBC 3 (Waco: Word, 1987), 207; Philippe Reymond, *L’eau, sa vie, et sa signification dans l’Ancien Testament*, 69.

과 이사야의 글에서 홍해 사건은 바다의 이미지를 통해 우주적, 묵시적, 종말론적 차원에서 묘사된다.

시편의 여러 곳에서 홍해 사건이 등장하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찬양한다(예: 시 66:6; 78:13). 시편 기자는 바다(물)를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의인화시킨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물 안에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74:13),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77:16)하는 등의 묘사는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서의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 앞에 두려워하며 굴복하는 것을 보여 준다. 특별히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106:9),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114:3) 등의 표현은 전형적으로 바다를 의인화하는 것이다.⁷¹⁾ 시편 114:3의 칠십인역(시 113:3)에서 바다가 ‘도망갔다’(ἐφυγεν)란 표현은 요한계시록 20:11에서 땅과 하늘이 ‘도망갔다’(ἐφυγεν; 『개역개정』은 “피하여 간”으로 번역)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의인화시켰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비록 20:11에서 바다가 도망갔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요한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삼중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21:1에서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선언에 비추어 볼 때 바다 또한 땅과 하늘처럼 의인화되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망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치되는 것과는 다르게 바다는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다가 사망과 음부와 사실상 동의어로서(20:13)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불못에 던져져 완전히 멸망하게 되듯이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완전한 파멸과 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20:13-14). 이렇게 바다가 사라져야 할 운명은 시편에서 묘사한 출애굽의 바다 이미지와 속성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새 출애굽의 소망을 좀 더 장엄하게 묘사하고 바다와 물의 출애굽 이미지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나타낸다.⁷²⁾ 이사야 43:16-21은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며, 전반부(16-17절)에서는 출애굽 당시의 홍해 사건을 역사적으로 묘사하고, 후반부(18-21절)에서는 과거에 행하셨던 능력의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는 더 크고 새로운 일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 준다. 과거에 하나님은 바다를 마르게 하고 길을 내어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43:16-17), 장차 미래에는 그의 백성을 위해 더욱 놀랍고 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43:19-21). 그것은

71) 이러한 바다의 의인화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의 장엄한 신현(theophany)을 나타냄과 동시에 물로 표현되는 혼돈과 악의 세력과의 전투를 나타낸다. Leslie C. Allen, *Psalms 101-150*, WBC 21, rev. ed. (Nashville: Thomas Nelson, 2002), 142.

72) 특별히 이사야 40-55장에서 새 출애굽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온다.

과거와는 다르게 역으로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그의 백성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마시게 할 것이다(43:20).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저주의 물(바다)을 그의 백성을 위해 축복의 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⁷³⁾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러한 역전의 상황이 전개된다. 새 창조에서 바다는 소멸되지만 그 대신 생명수의 강이 흘러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빌은 요한계시록 4:6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22:1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과의 의도적으로 대조되었다고 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ἐνώπιον τοῦ θρόνου) 굴복당해 있던 악의 근원인 바다가 새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ἐκ τοῦ θρόνου τοῦ θεοῦ καὶ τοῦ ἀρνίου)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의해 제거되고 대체된다고 말한다.⁷⁴⁾

이사야 50:2는 시편 106:9와 동일하게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필자는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⁷⁵⁾ 뒤이어 나오는 이사야 51:9에 여호와의 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며 이것은 출애굽기 15:16의 모세의 노래에서 “주의 팔이 크므로”를 연상케 한다. 키(Howard C. Kee)에 따르면, 성경은 ‘물’이란 이미지를 사용하여 ‘종말론적 소망의 성취’(the fulfillment of the eschatological hope)를 보여 준다.⁷⁶⁾ 특히 이사야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두 가지 종말론적 의미를 제시한다. (1) ‘물을 꾸짖음’(사 17:13)을 통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2) ‘바다를 마르게 함’(50:2)을 통해 혼돈과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⁷⁷⁾ 이사야에서 묘사되는 물에 대한 통제와 소멸은 요한계시록에서 물의 표상들을 통해 보여 주려고 하는 신학적 의미들과 연속성 상에 놓여 있다. 이사야가 바라보는 최종적 종말의 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창조의 환상으로 보여주며 바다를 마르게 함으로써 혼돈과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며 최종적인 승리를 나타낸다.

파오(David W. Pao)는 이사야가 출애굽 사건을 우주발생론적(cosmogonic) 차원의 형태로 새롭게 변형시키고 새 출애굽을 창조적 사건으로 묘사한다

73) Gary V. Smith, *Isaiah 40-66*, NAC 15B (Nashville: B&H, 2009), 208.

74) 빌은 계 22:1의 ‘생명수’의 샘 또는 강이 겔 47:1-9와 숙 14:8의 장면들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겔 40-48장의 성전 환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328, 1103.

75) 그 외의 견해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송 문학’의 전승, 자연의 생태적 변형(갱신 또는 퇴보)에 대한 전승 등이 있다. Gary V. Smith, *Isaiah 40-66*, 208-210.

76) Howard C. Kee, “The Terminology of Mark’s Exorcism Stories”, *NTS* 14 (1968), 236.

77) Ibid.

고 주장한다.⁷⁸⁾ 이사야는 51:9-10에서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과거에 행하셨던 구원의 능력을 다시금 나타내 보여 달라고 호소한다.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바다와 물은 우주적, 묵시적 차원의 라합과 용으로 대치되고, 바다(넓고 깊은 물)가 마르게 된 것을 라합과 용을 무찌른 것으로 묘사된다.⁷⁹⁾ 라합과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주적 차원의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행위는 혼돈과 악의 세력을 파멸시킨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적, 구원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출애굽은 창조와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 행위(출애굽)는 그의 창조 행위와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⁸⁰⁾ 즉 역사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로부터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 행위는 우주발생론적 차원에서 혼돈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창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출애굽 때 바다를 마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듯이 새 창조의 새 출애굽 때 바다를 마르게 하여 그의 백성을 새 창조의 세계로 인도하신다.⁸¹⁾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대를 거치면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새 출애굽을 위한 구원 사역으로 재해석되고, 우주적, 묵시적, 종말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결합된다. 따라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동시적 행위로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새 출애굽의 소망의 형태로 계속해서 변형되어 나타난다.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새 출애굽 모티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사야의 바다 이미지를 통한 새 출애굽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동시적 행위로서 혼돈과 악의 세력의 멸망과 함께 새로운 세계로의 인도를 의미한다. 이와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창조 때 바다의 사라짐은, 좀 더 심화된 우주적, 묵시적, 종말론적 차원에서 바다로 상징되는 혼돈과 악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파멸과 소멸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게 될 새 창조의 세계를 보여 준다.

78) David W. Pao, *Acts and the Isaianic New Exodus*, WUNT 1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 54.

79) 라합은 애굽(사 30:7), 용은 바로(겔 29:3)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사 51:9-10의 라합과 용은 우주적 차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주권을 보여 주기 위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John Goldingay, *The Message of Isaiah 40-55: A Literary-Theological Commentary* (London: T&T Clark, 2005), 432; John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8), 341-342.

80) 참고. Richard J. Clifford, *Fair Spoken and Persuading: An Interpretation of Second Isaiah* (New York: Paulist, 1984), 18, 23.

81) Jonathan Moo, “The Sea That is No More: Rev 21:1 and the Function of Sea Imagery in the Apocalypse of John”, 155.

4. 결론

클리포드(Richard J. Clifford)는 신구약 성경의 역사적 흐름 가운데 세 번의 중요한 출애굽(탈출) 시대가 있다고 말한다.⁸²⁾ 다소 산만하고 통일성이 부족해 보이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속성은 출애굽이란 강력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원리를 통해 통합되고, ‘해방’(liberation)과 ‘형성’(formation)이라는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새롭게 적용되고 발전한다.⁸³⁾ 이 세 번의 시대는 출애굽의 기원이 되는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과 바벨론(바사) 포로기의 출애굽,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정을 이루는 예수에 의한 출애굽 시기들을 가리킨다.⁸⁴⁾ 두 번째와 세 번째 출애굽은 첫 번째 출애굽에 근거하여 소망과 확신을 품은 새 출애굽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대에 걸쳐 끊임없이 이야기 되어 전달되며 그들의 신앙의 초석과 환난의 극복과 소망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모세 오경 이후의 성경의 글들 안에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깊숙이 스며들어 내재해 있다. 과거 애굽의 핍박과 압제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란 소망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강력한 연결 고리가 된다.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은 더욱 강렬하게 새 출애굽의 소망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새 출애굽의 이미지는 우주적, 묵시적, 종말론적 차원에서 새롭게 묘사되고 있으며, 새 출애굽의 신학적 의미는 구원과 창조의 두 측면 모두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돈과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고, 또한 새 창조 때에 그 세력을 완전히 소멸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새 출애굽은 바다라는 이미지를 통해 확연히 나타난다. 바다는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과 구원을 드러내 보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다시금 우주적, 묵시적, 종말론적 차원에서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재해석 된다.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바다를 통제하시고 조정하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능력의 하나님은 바다를 통해 그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는 혼돈과 악의 세력의 근원 자체를 제거하고 소멸시키신다. 환상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하늘 보

82) Richard J. Clifford, “The Exodus in the Christian Bible: The Case for ‘Figural’ Reading”, *TS* 63 (2002), 345.

83) *Ibid.*

84) *Ibid.*

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계 4:6)는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완전히 굴복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의 능력을 드러내며, “불이 섞인 유리 바다”(15:2)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파멸시키고, 새 창조 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21:1)는 선언은 악의 완전한 제거와 소멸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요한계시록의 바다의 등장과 전개와 퇴장은 새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반영하고,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상징된 바다에 대한 통제와 심판과 소멸을 우주적, 묵시적, 종말론적 차원에서 장엄하게 묘사함으로써 완전한 구원과 새 창조의 세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바다의 사라짐은 새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새 출애굽의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주제어>(Keywords)

바다, 요한계시록 4:6과 15:2와 21:1, 새 출애굽, 새 창조, 혼돈과 악의 세력.
sea, Revelation 4:6; 15:2; 21:1, new exodus, new creation, chaos and evil forces.

(투고 일자: 2019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19년 2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19년 4월 19일)

<참고문헌>(References)

- 쿡, 스티븐 L., 『묵시문학』, 차준희 역, Interpreting Biblical Texts,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헨드릭슨, 윌리엄, 『요한계시록』, 김영익, 문영탁 역, 헨드릭슨 패턴 주석 시리즈, 서울: 아가페, 2015.
- Allen, Leslie C., *Ezekiel 1-19*, Word Biblical Commentary 28, Dallas: Word, 1998.
- Allen, Leslie C., *Psalms 101-150*, Word Biblical Commentary 21, rev. ed., Nashville: Thomas Nelson, 2002.
- Aune, David E., *Revelation 1-5*, Word Biblical Commentary 52A, Dallas: Word, 1997.
- Aune, David E., *Revelation 6-16*, Word Biblical Commentary 52B, Dallas: Word, 1998.
- Aune, David E., *Revelation 17-22*, Word Biblical Commentary 52C, Dallas: Word, 1998.
- Bauckham, Richard,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Bauer, W., Danker, F. W., Arndt, W. F., and Gingrich, F.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ev. ed., Frederick William Dank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eale, G. K.,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The Unfolding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9.
- Beale, G. K., "The Problem of the Man from the Sea in 4 Ezra 13 and Its Relation to the Messianic Concept in John's Apocalypse", *Novum Testamentum* 25 (1983), 182-188.
- Beasley-Murray, G. R., *The Book of Revelation*, New Century Biblical Commentary,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1981.
- Boring, M. Eugene, *Revelation, Interpretation: A Biblical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1989.
- Boxall, Ian, *The Revelation of Saint John*,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London: Continuum, 2006.
- Caird, G. B., *A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St. John the Divine*, New York: Harper & Row, 1996.
- Carrington, P., *The Meaning of Revelation*, London: SPCK, 1931.

- Charles, Robert Henry, ed., *Pseudepigrapha of the Old Testament*, vol. 2, Oxford: Clarendon Press, 1913.
- Clifford, Richard J., *Fair Spoken and Persuading: An Interpretation of Second Isaiah*, New York: Paulist Press, 1984.
- Clifford, Richard J., “The Exodus in the Christian Bible: The Case for ‘Figural’ Reading”, *Theological Studies* 63 (2002), 345-361.
- Clines, David J. A., *Job 1–20*, Word Biblical Commentary 17, Dallas: Word, 1998.
- Collins, A. Yarbro, *The Apocalypse*, New Testament Message 22,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0.
- Cooper, Lamar Eugene, *Ezekie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17,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 Craigie, Peter C., *Psalms 1–50*, Word Biblical Commentary 19, 2nd ed., Nashville: Nelson, 2004.
- Durham, John I., *Exodus*, Word Biblical Commentary 3, Waco: Word, 1987.
- Farrer, A., *The Revelation of St. John the Divine*, Oxford: Clarendon, 1964.
- Ford, J. M., *Revelation: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38, New York: Doubleday, 1975.
- Giblin, C. H., *The Book of Revelation: The Open Book of Prophecy*, Good News Studies 34,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1.
- Goldingay, John, *The Message of Isaiah 40-55: A Literary-Theological Commentary*, London: T&T Clark, 2005.
- Kee, Howard C., “The Terminology of Mark’s Exorcism Stories”, *New Testament Studies* 14 (1968), 232-246.
- Kistemaker, Simon J.,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New Testament Commentary 20, Grand Rapids: Baker, 2001.
- Mathews, K. A., *Genesis 1-11:26*, The New American Commentary 1A,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6.
- Mathewson, D., “New Exodus as a Background for ‘The Sea Was No More’ in Revelation 21:1c”, *Trinity Journal* 24 (2003), 243-258.
- McNamara, M., *The New Testament and the Palestinian Targum to the Pentateuch*, Analecta Biblica 27,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6.
- Moo, Jonathan, “The Sea That is No More: Rev 21:1 and the Function of Sea Imagery in the Apocalypse of John”, *Novum Testamentum* 51 (2009), 148-167.
- Morris, Leon, *The Book of Revelation*,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87.

- Mounce, R. H., *The Book of Revelation*,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7.
- Mulholland, Jr., Robert M., *Revelation: Holy Living in an Unholy World*, Grand Rapids: Zondervan, 1990.
- Osborne, Grant R., *Revelatio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 Oswalt, John 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8.
- Pao, David W., *Acts and the Isaianic New Exodus*,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t 1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
- Park, Sung-Min, *More Than a Regained Eden: The New Jerusalem as the Ultimate Portrayal of Eschatological Blessedness and It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Book of Revelation*,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1995.
- Patterson, Paige, *Revelation*, The New American Commentary 39, Nashville: B&H, 2012.
- Propp, William H. C., *Exodus 1-18: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2, New York: Doubleday, 1999.
- Reymond, Philippe, *L'eau, sa vie, et sa signification dans l'ancien testament*, Leiden: Brill, 1958.
- Rissi, M., *The Future of the World: An Exegetical Study of Revelation 19:11-22:15*,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23, London: SCM, 1972.
- Sailhamer, J., *The Pentateuch as Narrative: A Biblical-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1.
- Schüssler-Fiorenza, E., *Revelation: Vision of a Just World*, Proclamation Commentaries, Minneapolis: Fortress, 1991.
- Smith, Gary V., *Isaiah 40-66*, The New American Commentary 15B, Nashville: B&H, 2009.
- Snyder, B. W., "Combat Myth in the Apocalypse: The Liturgy of the Day of the Lord and the Dedication of the Heavenly Temple", Ph.D. Dissertation, Graduate Theological Union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1.
- Snyder, Graydon F., "Sea Monsters in Early Christian Art", *Biblical Research* 44 (1999), 7-21.
- Stadelmann, Luis I., *The Hebrew Conception of the World*, Analecta Biblica 39,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70.
- Stefanović, R.,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Sealed Book of Revelation 5*,

Ph.D. Dissertation, Andrews University, 1995.

- Stegner, William Richard, “Jesus’ Walking on the Water: Mark 6:45-52”, Craig A. Evans and W. R. Stegner, eds., *The Gospels and the Scriptures of Israe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0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212-234.
- Swete, H. B., *The Apocalypse of St. John*, London: Macmillan, 1906.
- Vinson, Richard B., “The Sea of Glass, the Lake of Fire, and the Topography of Heaven in Revelation”,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45 (2018), 127-138.
- Vögtle, Anton, *Das Neue Testament und die Zukunft des Kosmos*, Düsseldorf: Patmos, 1970.
-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1, Dallas: Word, 1998.
- Westermann, Claus, *Genesis 1–11*, Continental Commentary, J. J. Scullion,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4.

<Abstract>

**The Appearance, the Development, and the Extinction of the Sea
in Revelation (4:6; 15:2; 21:1) and Its Theological Significance
in Light of the New Exodus**

Sun Wook Kim
(Anya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the sea in Reve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w exodus, focusing on the scenes of its appearances, development, and extinction in Revelation (4:6; 15:2; 21:1). From the beginning of John's vision in Revelation 4, the sea emerges with a spectacular description of the heavenly throne that is adorned with "a sea of glass like crystal" (4:6). In chapter 15, the sea is portrayed as "a sea of glass mingled with fire" (15:2) while pouring out plagues and judgement in the following chapter. Finally, in chapter 21 where the world of new creation unfolds, the complete and final extinction of the sea takes place with the declaration that "the sea was no more" (21:1). It is hard to understand, however, that the sea which seemed to be a means of decorating the heavenly throne in the first scene has completely disappeared in the new creation at the final scene.

For the contradictory descriptions of the sea in Revelation, I try to solve this problem by finding its nature and identity with the perspective of the new exodus in the cosmic, apocalyptic, and eschatological dimensions. The Red Sea event has been reinterpre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the Old Testament (OT) and the later Jewish literature, during which the sea was regarded as the chaos and evil forces. In the exodus, the sea was a threat to both the Egyptian army and the Israelites, but God used the sea to destroy the Egyptian army and dried the sea to save the Israelites. On the one hand, the sea therefore serves as a tool to destroy the adversaries of God and his people while on the other hand, the sea is the chaos and evil force threatening God's people that should be eliminated. The sea means both the tool of judgement over the evil people and the evil itself.

Such nature and identity of the sea in the OT and the later Jewish literature are

similarly manifested in Revelation, and are described in terms of the new exodus and in cosmic, apocalyptic, and eschatological dimensions. The glass sea like crystal (4:6), which implies the chaos and evil force in front of the heavenly throne reveals the glory and sovereignty of God through the complete submission of the sea. The glass sea mixed with fire (15:2) is used as a tool of judgement to destroy the forces that oppose God and his people. The sea being no more at the time of the new creation (21:1) shows that the complete elimination and extermination of evil has been accomplished. Just as the Red Sea dried up in the original exodus and thus entered the Israelites into the promised land, so the sea will be eliminated in the new creation of Revelation, which implies the ultimate and final destruction of chaos and evil forces, and that the people of God will dwell in the world of the new creation with the fulfillment of the new exodus.